

강진군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순항

산자부 공모 선정 49억원 투입

3월부터 태양광설비 271곳 완료

에너지 복지 기본소득 실현 박차

강진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강진군은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된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총 사업비 49억원의 예산을 투입,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복지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

너지 설비를 마을과 가정에 설치하는 것으로 올해 3월부터 시공에 들어가, 5월 말 기준 태양광 259개소, 태양열 12개소 등 총 271개소가 완료됐다.

연내 556개소 설치를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강진군이 총 사업비의 77%에 달하는 38억원 이상을 군비로 직접 투입했다는 점이다.

이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두 번째로 많은 규모로 강진군이 에너지 복지를 군정의 핵심 과제로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고령층과 농촌지역 주민의 에너지 부담 완화를 도

모하고 있으며 지붕형 태양광, 생활 온수용 태양열, 지열 냉난방 시스템 등을 설치해 간편하고 관리도 쉬워 주민 만족도 또한 높은 편이다.

군은 지난 2022년, 2024년에도 같은 사업을 통해 총 986개소에 에너지 설비를 보급했으며, 올해는 여기에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더해 설비의 유지관리 신뢰성도 더욱 강화했다.

이와 관련 강진군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보급을 넘어, 군민의 삶의 질을 바꾸는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정책”이라며 “에너지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장흥자활센터 '같이도시락' 사업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이 도시락 배달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정성과 사랑 담긴 장흥자활센터 '같이도시락' 눈길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

복지사각 청소년 218명에 전달

장흥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취약 계층 청소년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는 사업을 진행해 눈길을 끈다.

장흥지역자활센터는 지난 1월 장흥군, 청소년 그루터기재단, 장흥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같이도시락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맺고, 같은 달 26일부터 장흥군 내 청소년 218명에게 반

찬 도시락을 직접 전달했다.

이 사업은 3~4인분의 균형잡힌 도시락을 만들어 장애부모·한부모·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제공하는 취지로 시작됐다.

1차 사업에서는 1월부터 14회에 걸쳐 총 3000개의 도시락이 전달되며 상반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2차 사업은 6월부터 8월까지 교육 기간을 거쳐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더 많은 청소년의 영양 불균형 해소와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의 도시락 제조와 배달에는 장흥지역자활센터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울엄마밥상) 어르신들도 참여했다.

사업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내 손주가 먹는다고 생각하고 정성껏 만들어 뿐만 아니라”라고 말했다.

위수미 장흥지역자활센터장은 “노인일자리 사업 정착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도시락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하반기에도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화순읍 도심~외곽도로 직통 연결 도시계획도로로 개통

현대차~다지고 간 350m 4차선

화순읍 도심과 외곽도로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현대차~다지고 간 도시계획도로가 개통했다.

이 도로는 외곽도로에서 화순읍 도심지로 진입하기 위해 화순읍례시장 방면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민선 8기 구복규 화순군수가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역점사업이다.

총연장 350m 왕복 4차선 도로 개설을 위해 총사업비 42억원을 투입해 지난 2022년부터 미보상 토지 협의를 시작으로 2023년 3월 보상을 완료하고 지난해 4월 공사에 착공해 최근 완공했다. 〈사진〉

방상열 화순군 도시과장은 “현대차~다지고 간 도시계획도로 개통에 따라 외곽도로에서 우회하지 않고 화순읍 도심지로 직접 진입할 수 있게 됐다”며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강진 오감누리타운에서 만나는 감성 피크닉

강진만의 감성과 문화 체험 행사

강진군이 오는 14일 강진읍 오감누리타운 일대에서 ‘2025 오감통의 다정한 피크닉’을 개최한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하나로 강진의 차문화와 고려 역사문화를 접목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통해 오감누리타운의 공간 활성화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오감통의 다정한 피크닉’은 차 한 잔의 여유를 주제로 강진만의 감성과 문화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행사다. 가족 단위는 물론 청소년, 중장년 층 등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특히 오감누리타운 광장과 간디공간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 대표 관광자원으로서의 오감누리타운의 잠재력을 널리 알리고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연장하는 기회로 삼는다.

주요 프로그램은 ▲차문화 체험 ‘다정한 피크

닉’ ▲고려의상 체험 ▲막대인형극, 마술 공연, 뮤지컬 등 문화공연 ▲AI 가족송 제작, 업사이클링 키링 만들기, 오감통 사진관 등 다채로운 체험 부스로 구성돼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전 신청자 35가구에 피크닉 바구니, 달식 세트, 강진 차 세트 등이 제공돼 풍경 있는 감성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주어진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 백경자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 강진의 전통문화와 자연을 체험하고 오감누리타운을 가족 중심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화순 ‘만원 임대주택’ 입주자 21일 추첨

100가구 선정에 439명 참여

화순군은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3년 차 추첨행사를 오는 21일 화순읍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직벽실)에서 개최한다.

올해 추첨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은 총 439명이며 청년1형 22명, 청년2형 376명, 신혼부부 41명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동호수 추첨을, 청년형의 경우 입주 선정 여부와 동호수 추첨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추첨은 본인 추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위임받은 대리인의 대리 추

첨도 가능하다.

올해 사업 3년차를 맞이한 만원 임대주택 사업은 화순군이 매년 지역 아파트 100가구를 임대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1만원의 임대료만 받고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앞서 구복규 화순군수는 만원 임대주택 리모델링 현장을 찾아 마감 상태와 설비 작동 여부, 안전 사항 등 주택 내부공사의 사전점검을 진행했다.

조미화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직접 추첨 방식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해서이므로 추첨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나주 ‘청소년 100원 버스’ 교통카드만 사용

다음달부터 이용 방식 변경

나주시가 지난해 3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행복나주 청소년 100원 버스’ 이용 방식을 오는 7월부터 변경한다.

나주시는 현금 이용 시 버스 이용 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고 광역버스(997-998-999-160-161번)의 현금 승차 폐지로 혼선 방지를 위해 청소년 100원 버스 이용을 ‘교통카드 전용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어린이·청소년 전용 교통카드로만 버스 탑승이 가능하며 가까운 편의점 등에서 구매·충전할 수 있다.

‘청소년 100원 버스’는 나주시에 주소를 둔 6세부터 18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

내, 마을, 급행, 순환, 콜버스 등 관내 전 노선을 1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민선 8기 대표적인 교통 복지 정책이다. 정책 시행 이후 어린이·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전년 대비 23% 증가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버스 이용 정책 변경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누리집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각급 학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청소년 100원 버스 정책 시행 이후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향상됐다”며 “이번 이용 방식 변경이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귀농인 창업·주택 구매 용자 신청하세요

함평군 최대 3억원까지 지원

함평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돋기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함평군은 ‘2025년 하반기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오는 19일 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귀농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차보전 용자 지원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3억원의 농업 창업 자금과 7500만 원의 주택 구매 및 신축 자금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연 2%이며 상환 방식은 5년 거치 후 10년 분할 상환 방식이다. 대출금액은 한도 내에서 대상자의 사업 실적과 대출기관의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 외 소득 활동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지에 주택 신축도 가능해져 귀농인 정착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사업대상자 및 지원 자격 등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농어촌공동체와 귀농귀촌팀(061-320-213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함평군은 “귀농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번 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성군,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대물 피해 최대 3000만원 보장

장성군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등록장애인·고령주민 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되며, 여타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기간은 오는 2026년 5월 31일까지며,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제3자에게 대인·대물 피해를 입혔을 경우 사고당 최대 3000만원 한도로 보장해 준다.

본인부담금은 보장금액의 0.1%인 최대 3만원이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전동보조기를 운전한 당사자(피보험자)의 신체 상해나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장성군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해 왔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이 장애인과 고령 주민의 이동권 향상과 사고 발생에 따른 심리·경제적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나주시 ‘시민의 상’ 수상 후보자 추천 접수

다음달까지 지역개발 등 5개 부문

나주시가 오는 7월 31일까지 ‘2025년 나주시민의 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접수한다.

‘나주시민의 상’은 지역개발, 사회복지, 충효도의, 산업경제, 교육문화 등 5개 부문에서 혁신과 봉사를 실천해 온 시민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그 공적을 기리는 나주시 최고 권위로운 상이다.

대상자는 나주시에 등록기준이 또는 주소를 두고 해당 분야 공적이 뚜렷한 시민이다.

후보자는 각 부문별 공적과 관계된 기관장, 나주시청 실·단·과·소장 및 읍·면